

유 학 보 고 서

파 견 대 학	산동대학교 위해분교
파 견 기 간	2016.09.04.~2016.12.31
학과 및 학년	국어국문창작학과 2학년
성 명	이 슬 아
제 출 일	2017.01.25

-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2016년 9월 4일 학기종료: 2016년 12월 23일 방학: 2016년 12월 27일~

학교주소:

제가 머문 위해는 산동성에 속하며 한국과 정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항공권이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합니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면 왕복20만원에도 살 수 있으며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 2일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위해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지역이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한국과 기온은 비슷하지만 바람이 엄청나서 춥게 느껴집니다. 산동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아서 한국인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기간 동안은 한국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다른 학교를 추천 드리지만, 요즘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한국인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해의 경우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한국식당이 많습니다. 한국음식 배달점도 있으며 미즈컨테이너, 니뽕내뽕, 전주비빔밥, 엽떡, 삼겹살 등 위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저는 중국어에 대한 기초만 알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과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HSK4급이 요구됩니다. 제가 들은 어학반 수업은 A반 수업입니다. 기초부터 배우는 단계라 성조부터 꼼꼼하게 배웁니다.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의 수업은 그럭저럭 쉽다고 느껴지지만 중간고사 이후 진도를 나가는 두 번째 교재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는 만학도 분들이 많아서 학구열이 정말 높은 반이었습니다. 기초반이었지만 B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말을 아주 잘 하시지만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는 무조건 중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못알아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업일수가 늘어갈수록 점차 들리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많아서 어학반수업도 반이 여러개로 나뉩니다. 다른 반에 있다가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을 바꾸어도 무관합니다. 실제로 그런 유학생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춰 반을 들어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산동대학교 위해에는 기숙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원, 문락원, 찐샤귀지가 있는데, 문화원의 경우 4000위안이며 학교 내에 있어 위치상으로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습하고 벌레가 많습니다. 문락원도 학교 내에 있지만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곳도 4000위안으로 같지만 문화원보다는 방이 작아 답답하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지냈던 찐샤귀지는 5000위안으로 비싸지만 호텔을 잠시 유학생들에게 내주는 형식이라 정말 좋고 깨끗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할 수 있고 난방은 중앙 난방으로 바닥이 따뜻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탄다면 따로 난방바람을 틀 수 있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지만 학교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있고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 여름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기숙사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세 곳을 모두 가본 저로서는 찐샤귀지를 추천드립니다.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저는 비위가 약하고 가리는 음식이 많아서 입맛이 좀 까탈스러운 편입니다. 중국음식 당연히 입에 맞지 않아서 한국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앞서말한 것처럼 한국음식이 정말 많지만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30위안에서 50위안 사이입니다. 하지만 중국음식은 15위안이면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중국학생들 입맛에 맞춘 식당이라서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먹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물가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용돈만큼 받으면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첫날 픽업할 때 유심카드를 나눠줍니다. 그것을 끼고 100위안을 내면 개통이 됩니다. 저는 위챗이 계속해서 정지가 되어서 핸드폰을 두 번이나 개통을 다시 했습니다. 위챗은 한국에서 미리 다운받아가는게 좋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이 VPN이라는 어플없이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다운받아가시길 바랍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산동대학교는 중국 내에서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과생 친구들의 학구열도 높고 특히 한국어학과가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산동대학교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인은 너무 많고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주지 않아 본인이 다가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어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친화적인 분위기와 상점들이 유학생들에게 다른나라라는 이질감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중국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싶다면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공기, 조용한 도시, 멀지 않은 중국, 주변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산동대학교 위해분교는 최적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6. 유학생활을 마친 소감

저의 유학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학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힘이 들었고 공부를 하지만 중국어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어의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고 갔다면 중국어를 빠른 시일 내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학기 동안에는 중국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